

# 자유율법을 지켜서 구세주가 됩시다

## 구세주는 사망의 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생의 물결이 흐르는 데 육천 년 걸렸습니다

육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바꿔 놓는 그 기간이 육천 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써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짝이 없는 말씀이 많이 있죠?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씀도 모릅니다.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 지존자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성경 시편에 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고 써어 있습니다. 이 세상 구세주가 이 세상 임금으로 내(예수) 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22절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습

니다.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이슬성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전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경에도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써어 있습니다. 계두왕은 신라 나라 왕입니다. 한국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긴자란 뜻입니다. 이긴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했습니다. 또한 찬송가에는 백합화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는 산꼭에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난이시네 줄세” 구세주는 백합화 명랑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세주란 뜻으로 만인 위에 뛰어난 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을 보니까 뛰어난 주님입니다. 새벽별은 밝은 별인데 “이기는 자는 천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 이 세상에 태양이 되는 햇빛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구세주 조희성님

어두워질 때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을 발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는 것은 격암유록,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 속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라 신을 믿는 아랍 사람들도 구세주가 앞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의 경 속에 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에 아랍 사람들이 말하기를, 까만 돌 사이에서 샘물이 나오는 메카 성지가 있는데, 그 까만 돌이 하얗게 될 때에는 구세주가 온 줄 알아라 하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그 까만 돌이 하얗게 되기만 하면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랍 갔을 때에 그 까만 돌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구세주가 왔나보다. 이제 구세주가 왔으니 까만 돌이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빙글빙글 돌라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전세계에 빛을 발하고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없어지고 빛이라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이제 이

사람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태양 빛의 수십 배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발하기만 하면 그 빛은 곡선광선인고로 그림자가 없고 날이 흐려서 햇빛이 가려져도 밝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이 발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500살 먹은 사람이 있어도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려면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이기 때문에 환한 빛 속에서는 하나님

의 신이 함께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마귀 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잠잘 때에 전깃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도 항상 켜고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닮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이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명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지니 죽어 어디 있는노(욥기서 14:14)”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이사야서 26:14)”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혼은 나라는 주체의 식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혼인데 뜻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이 우글거리고 많이 있겠지요? 썩은 영이 나라는 의식을 밀어내고 썩은 사람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미치는 과정의 근본원인이 바로 죽은 사람의 썩은 영이 현제 나라는 의식의 혼을 밀어내고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내가 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죽은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가 아버지이고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막이놈아 저놈아 몰도 떠오라고 시키고 그런 것을 나는 봤습니다.

### 구세주는 마귀를 멸하는 권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귀가 움직이는 것을 전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를 모조리 멸해서 없애버리는 능력의 영이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마귀를 완전히 소탕시켜버린다고 격암유록 새41장에 쓰여 있죠? 이견기타파멸마(機打破滅魔) 정도령은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소탕박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없으면 까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의 자격은 사망의 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전부 마귀가 하는 장난이므로 그 마귀의 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이 없으면 구세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를 만났으니 여러분들 다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입니다. 구세주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서 이긴자가 된 다음에 구세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 됩니다. 구세주가 안 되면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말씀 중에서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작용



## 마음이 몸이요, 몸이 마음이다

마음이 몸 전체, 정확히 말하면 핏속 속에 있다는 말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이 있으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든 그르든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가? 육체는 변하는데 자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영육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사실 인체의 세포 수명을 동위원소(同位元素)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빠른 것은 2~3주일,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같이 수명이 긴 것도 약 7년이면 전부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는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럴 듯한 증거로 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별개라는 사실로 믿고 싶어 하는, 그래서 뭔가 믿음에 체계를 굳건히 쌓은 사람들이다. 즉, 사후 세계나 윤회전생관(輪廻轉生觀)을 믿고

따르는 신념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물질관적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한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물탱크에서 한쪽으로부터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이 흘러 나간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인간 몸에서의 세포의 조성고 소멸 상태와 같은 조건이다.

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물탱크에서 물이 한 방울도 없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가버리고, 다시 온전히 새로운 물로 물탱크가 가득 찬다고 상상하는 사람이다. 즉 세포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포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물통의 물은 그냥 물질이지만, 사람의 세포는 유기체이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세포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생명체인데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는 생존본능에 따르기 마련이다. 몸

자체가 한 사람의 인격체의 정보라면, 각각의 세포는 그 몸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세포도 기존의 세포와 섞여 생존조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품을 수 있는 의구심은 기존의 세포와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마치 기계에서 상품이 찍혀져 나오듯이 세포도 기계마냥 상호작용 없이 교체될 것이라는 착각에 기인한 것이다.

### 음양오행과 오정육부와 마음의 관계

삶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을 소유한 예술가들은 몸 전체가 의식덩어리요 마음보라는 것을 자신들만의 특유한 언어로 폭넓은 예술의 세계에 수도 없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한의학에서도 몸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과 인체의 오장육부의 관계를 눈여겨 보자.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각 장기에 담겨진 마음의 이치까지 터득할 수 있어 실어본다.

오행의 기운 중 목(木)은 인체의 장부 가운데 간과 담을 관장하고, 간담은 곧 목기(木氣)적 특성의 마음과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간과 담이 건강하고 그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은 부드럽고 희망에 넘치며 성장하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를 표출한다. 반면에 간담이 병들고 약하면 심술부리고 잔인하며 나만 잘났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쉽게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남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오행의 기운 중 화(火)는 인체의 장부 가운데 심장과 소장을 관장하고, 심·소장은 곧 화기(火氣)적 특성의 마음과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심장과 소장이 건강하고 그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은 적극적이며 용감하다. 또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화려함을 즐기는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에 심·소장이 병들고 약하면 질투하고 시기한다. 쉽게 신경질 부리고 천박하며 심

하게 수다가 떨면서 버릇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오행의 기운 가운데 토(土)는 인체의 장부 중 비장과 위장을 관장한다. 위장이 건강하고 그 기운이 강하면 마음은 신용과 믿음을 주며, 진실하며, 한결같다. 또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에 비·위장이 병들고 약하면 답답하고 미련하면서 의심이 많다. 공상과 망상만 크고 쓸데없는 생각과 근심걱정이 많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오행의 기운 가운데 금(金)은 인체의 장부 중 폐와 대장을 관장한다. 폐·대장은 곧 금기(金氣)적 특성의 마음과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폐·대장이 건강하고 그 기운이 강하다면 굳세고 강하며, 지도력이 있다. 의리가 있고, 정직 소탈하며, 판단력이 강한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에 폐·대장이 병들고 약하면 슬프고 우울증이 있게 된다. 또 눈물이 많고 자살하고 싶으며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오행의 기운 가운데 수(水)는 인체의 장부 중 신장과 방광을 관장한다.

신·방광은 곧 수기(水氣)적 특성의 마음과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신·방광이 건강하고 그 기운이 강하다면 잘 인내하게 된다. 과학적이며 말수가 적고 신중하다. 또 생각이 깊어 연구하고, 끈질긴 마음의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에 신·방광이 병들고 약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인내심이 약하다. 공포심 내지 공포증이 많고, 색을 밝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인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포와 삼초라는 장부가 존재하는데, 이것의 기능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부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기운을 상화기(相和氣)라 한다.

심포 삼초의 상화기는 인체의 전체 오장육부의 기운과 기관이 서로 화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생명력을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 심포 삼초가 약하면 불안 초조 우울하고, 수줍음을 심하게 타며,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김주호 기자